

## 슬프고 아름답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 ‘몽실 언니’



지은이 권정생 선생님  
펴낸곳 창비 아동문고

〈몽실 언니〉는 일본에 살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온 어린이였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에 몽실이 언니의 첫째 남동생은 앓다가 죽었습니다. 각각 재혼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남동생 하나와 두 여동생이 더 생겼지요.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나라가 나뉘게 된 6.25 동란 때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고 고아가 되었지만 어린 동생 난남이를 구걸을 해서 키워냅니다.

많이 아주 많이 울면서도 몽실 언니는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구요? 컴퓨터에 게임기와 맛있는 저녁 식사와 따뜻한 집이 있어도 불만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몽실이 언니는 새 아버지 때문에 다리를 다쳐 평생 절뚝이며 살면서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느냐구요?

권정생선생님의 〈몽실 언니〉를 찬찬히 읽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만 하고 있는지 부끄러워진답니다. 몽실 언니가 살던 살강마을, 땃골의 비탈길이며 동생들 기저귀를 빨던 빨래터며 나이 들어서도 쉬지 않고 일하며 콩나물을 팔고 있는 시장의 한 모퉁이가 가보고 싶어진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면회 온 몽실언니를 만나 언니가 사다준 〈안네의 일기〉 〈사이튼의 동물기〉를 받고 기뻐하는 난남이처럼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언니, 몽실이 언니” 하고 기도처럼 불러보고 싶어진답니다. 아주 소중한 비밀처럼 알려줄게요. 우리말로 씌어진 슬프고 아름답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 〈몽실 언니〉.

〈글·김영숙 / 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